

폐지수집 여성 노인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Life of Old Women Collecting Waste Paper

배명선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yung-Sun Bae(cuty104@daum.net)

요약

본 연구는 폐지수집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장기간 폐지수집 생활을 지속하는 여성노인 7명이며, 예비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18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모음을 도출하였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경험에 대한 5개의 주제모음은 ‘힘들었던 지난시간-지나온 나’, ‘힘겨운 생활의 연속’, ‘계속 지탱하기’, ‘거리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내인생-지금의 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종합해 볼 때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삶의 본질은 ‘수용’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폐지수집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에서의 제도적·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폐지수집 여성노인 | 삶 | 수용 | 질적연구 |

Abstract

This is a qualitative study to research the meaning and essence of life of old women living alone collecting waste paper in their experiences of daily life. Targeting seven old women who have kept collecting waste paper for a long time, data was collected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 In the results of analyzing in accordance with Colaizzi(1978)'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total 18 themes and five theme-groups were drawn. The five theme-group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old women collecting waste paper included 'tough time-I have gone through', 'continuity of tough life', 'continuously bearing', 'adjusting to street environmental changes', and 'proactive and active life of mine-current myself'. In summary, the essence of life of old women collecting waste paper was interpreted as 'acceptance'. Thus, the institutional/practical intervention measures for the social welfare of old women collecting waste paper were suggested.

■ keyword : | Old Woman Collecting Waste Paper | Life | Acceptance | Qualitative Study |

I. 서론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14%로 UN에서 정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앞으로

7년 후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8.6이었던 노령화 지수는 2028년 196.3, 2029년 203.5로 200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300(303.2)

접수일자 : 2018년 05월 29일
수정일자 : 2018년 07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23일
교신저자 : 배명선, e-mail : cuty104@daum.net

신을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18.0인 노년부양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31.5로 2배까지 높아진다는 전망이다[1]. 이러한 현상은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주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성비는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노인 문제가 곧 여성 노인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2]. 장애 기대수명을 볼 때 남성과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 나이차는 3.3년이며, 고령사회가 심화될 경우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3]. 또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통계에서도 여성노인(76.7)이 남성(23.3)노인보다 3배 높은 수치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어 여성 노인이 혼자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4].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노년층의 성비 불균형은 가속화 될 것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력 측면에서 실제 여성노인은 남성보다 경제적 불안감이 2배가량 더 높고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1.2%로 남성노인의 31.2%보다 10% 높다. 이는 OECD 국가의 여성노인 빈곤율이 20%대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5]. 이처럼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사적이전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성이 낮고 재정적으로도 불안하다[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존 성비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노인의 생존율이 낮아진다. 65세~69세까지의 성비는 유사하나 70세~80세 사이는 여성 노인의 생존율이 2배, 80세 이후부터 5배 가량 차이가 났으며 90세 이후에는 10배가량 차이가 난다[3]. 이처럼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노인들에게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일거리 생계형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폐지수집활동이 그 일환이다.

2014년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A시에서 실시되었던 실태조사 연구에서 실제 폐지수집 여성 노인의 대부분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권자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6].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가부장적인 문화와 제도속에서 대부분 낮은 학력(무학력 등)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적고 경제적 빈곤, 육체적 노화 등으

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 그로인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생계형 일자리나 소극적 소득 활동을 바라 고 있으나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일자리의 선택영역은 한정되고, 폐지수집과 같은 단순 노동 소일거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빈곤 여성 노인들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생활실태와 만족도, 각종 사업 및 일자리 참여도, 우울·정신건강과 관련한 심리적 접근이었 으며, 빈곤여성 및 빈곤 노인여성에 대한 원인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탈빈곤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방안 모색에 그쳤다[4]. 이처럼 그간의 연구에서는 빈곤 여성노인에 대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형태, 정책적 접근이었으며, 빈곤(여성)노인 대상의 기능(질병, 노화 등)변화에 따른 심리적(우울, 불안 등)접근과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들이 노년의 빈곤을 공적영역(정부 보조금 등)이나 민간단체에서의 구호성 지원(복지기관에서의 현물(현금)서비스 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수집활동을 통해 일부 경제적 자립을 갖는 적극적인 생활에 대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에서의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인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년의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생활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현재의 삶과 그들이 지나온 시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경험, 그 속에서의 본질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있어 빈곤 여성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에서의 제도적, 실천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추후 여성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II. 문헌고찰

1. 빈곤여성노인

빈곤노인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항목에 대한 빈곤

의 특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양적연구형태의 접근이 많았으며[7] 2010년 전후부터 빈곤한 노년의 삶에 대해 경험적 접근을 토대로 한 질적 연구가 행해지면서 전체노인 대상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세분화시켜 연구되고 있다.

빈곤노인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로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의한다. 비수급자 노인에 비해 수급자 빈곤 노인은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등의 모든 삶의 조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급자는 고령화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54,484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비율이 26.9%(419,452명)였으나, 2016년에는 총 1,539,539명으로 전년 대비 15,000명 가량 감소했으나 전국의 주민등록인구(49,855,796명) 대비 수급자 비율이 3.1%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430,731명) 비율은 28%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 빈곤노인은 68.2%(286,160명)로 남성 수급자노인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1].

빈곤여성노인은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만성질환 등)의 문제로 불안과 죽음이라는 여생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된다[8]. 또한, 남성 빈곤노인에 비해 여성 빈곤노인이 심리적·정서적 우울감을 호소하고 남성 빈곤노인보다 가족, 친족,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처럼 여성 빈곤노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빈곤여성노인의 문제는 자가 소득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여성노인의 소득 원천은 '사적이전소득'(38.6%)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적연금'(19.5%), '일반적금 및 예금(13.9%)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의 '사적이전소득'보다 2배 가깝다. 이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경제적 의존성이 높고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4]. 또한 남성노인의 경우 '근로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들의 경우 남성노인들과 달리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독자적인 경제적 재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대리수행자나 보조자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성

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9].

여성노인의 빈곤실태와 원인에 대한 장미혜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의 빈곤율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노년 중기, 즉 75세 이상 85세 이하의 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5]. 국민연금 수급을 또한 남성노인은 39%, 여성노인은 15%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국민연금 수급율을 보인다[10]. 또한 노인의 소득원별 소득비중과 행복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은 자기소득 비중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상황적 여건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며, 노인의 79.3%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임시직(26.2%), 일용직(8.6%), 무급(13.7%)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남성노인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경우 소일거리 형태로 소득이 적은형태지만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6].

2. 노년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관계망

노인의 신체활동과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김혜경(2015)은 노년의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에 대해 직업을 통한 지속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여성 독거노인들의 자활근로 사례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신체활동은 금전적 도움과 노년의 건강유지를 위해서도 정책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년을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보다 홀로 생활하는 독거형태의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생활만족도가 낮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신체활동이 낮은 여성 독거노인의 흡연과 음주, 그리고 건강식품이나 건강용품 판매 행사 참가경험에 대해 여성 독거노인들의 경우 홀로 생활하면서 만성 질병을 앓고 있어 질병 치료나 건강기호식품, 건강관련 용품 판촉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많으며 참석 후 필요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다[12]. 이처럼 노년의 생활에서 신체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여성독거노인들의 경우 혼자 생활로 인한 식욕부진, 그에 따른 자립적 생활

이 불가능할 경우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2].

한국 노인의 신체활동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이 많은 노인들과 신체활동이 적은 노인들 간에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지지)의 부재가 노인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회적 지지의 혜택이 많은 노인은 적은 노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높은 경향이 있어 사회적 지지는 건강 상태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용한 요인이라고 밝혀졌다[14].

이처럼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고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크고, 긍정적인 사회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견뎌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그러나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독거 여성노인의 경우 도움을 주는 이웃, 지인, 종교인 등 자연스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은 여성노인의 노후생활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는 ‘고독사’,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 단체들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고독사’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경우 비정기적인 형태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과 이웃, 지역민들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노년의 정서적 안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의 생활 속 경험을 통해 그들을 삶을 이해하고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인간 체험(lived experience)의 본질적인(essential) 의미 구조를 규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

다[15]. 현상학적 연구 분석방법으로는 Colaizzi, Giorgi, Van Mannen 등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생활과 경험을 통해 이들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사회복지에서의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에 앞서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 선정을 위해 몇 가지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준선정과 거주지 선정이 필요했다. 먼저 기준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 거주 지역을 A시의 기준으로 폐지수집활동 노인이 가장 많이 분포(기초생활수급권자 거주통계 기준)되어 있는 2개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둘째, 폐지수집 여성노인으로 한정시켰다. 셋째, 폐지수집 기간이 5년 이상인 여성노인이다. 그리고 거주지 선정에 있어서는 연구대상 지역에서 폐지수집 노인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2개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남성노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여성노인 중 폐지수집 생활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한 대상을 A시의 노인복지시설 협조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질을 담보하고자 했다.

연구에 앞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 본 연구에 대해 노인인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했으며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처리와 비밀보장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인터뷰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남 A시에 거주하는 노인 7명을 대상으

로 심층면담 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시작하기 전 예비조사(2명)를 통해 질문 내용을 노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면담 회수는 연구 참여자에 따라 상이했으며, 1회~2회로 수행하였다. 참여자별로 심층면담은 회당 40분~80분가량 소요되었다. 연구 질문은 “나의 젊은 시절은 어떠했는가?”, “폐지 수집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 “폐지수집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나의 생활은 어떠한가?” 등의 형태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생활과 삶에 대한 비구조화된 질문 목록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관내 복지관에서 파견되는 서비스 인력과 동행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연구 질문 이외의 내용도 같이 면담하면서 자연스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면담 후에는 연구자가 녹음된 내용을 재생하여 반복해서 들으면서 1차 필사 후, 컴퓨터를 통해 실사작업을 진행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연령	학력	거주 형태	폐지 수집기간	자녀 수
가	83	무	월세	10년 이상	-
나	72	무	월세	5년 이상	-
다	75	무	월세	5년 이상	-
라	83	무	월세	12년 이상	2남
마	76	무	월세	8년 이상	-
바	68	무	월세	6년 이상	-
사	80	초졸	월세	7년 이상	2녀

4. 자료분석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폐지수집 여성노인에 대한 경험과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중의 하나인 Colaizzi(1978)의 분석법에 근거하였고 Moustakas(1994)가 수정한 절차대로[16]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 시 녹음해 온 내용을 수차례 반복해서 듣고 필사했으며, 필사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연구 참여자인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의미 있는 부분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녹음된 자료를 여러 차례 듣고 실시하면서 반복된 내용, 강조된 내용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는 중복되는 내용들 외에 추출된 문장들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된 문장들에 대한 부분을 재구성하였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제모음’하고 각각의 주제모음들은 세세한 주제로 세분화하면서 ‘주제’, ‘주제모음’ 형태로 범주화시켰다. 다섯 번째는 주제들에 대한 분석 내용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내용들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본질적 의미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18개의 주제와 유사 주제에 따른 범주화와 추상적인 의미를 조직화하여 5개의 주제모음을 도출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본 연구는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Cuba(1985)가 제시한 신빙성(credibility),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의 기준으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신빙성은 실제 현상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17]. 신빙성을 구축하기 위해 자료원 확보에 있어서는 실제로 폐지 수집하는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행정지역을 정하고, 심층면접을 위해 그 지역에 정기적으로(주2회 이상) 방문하는 복지기관의 의뢰를 통해 사전조사를 했으며, 연구 참여자들과 면식 경험이 있는 방문요양보호사와 동행하여 사전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의존가능성과 확증가능성은 연구과정을 감사(auditing)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의존가능성은 연구 진행에 있어 다른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심층면담 시 비구조화된 면담형태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경험이 있는 기존의 선임연구자들에게 자료 분석과 해석에

대해 조언을 받음으로써 의존성을 높이고자 했다. 확증 가능성은 연구에 대한 편견을 배제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심층면접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연구자의 편견이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심층면접 시 연구 참여자가 말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였다. 이전가능성은 양적연구에서의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말하는 의미하는 것이며[17] 이를 위해 심층면접시 이루어진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유사내용을 의미추출을 함으로써 내용의 틀을 만들고자 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폐지수집 활동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폐지수집 생활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47개의 구성된 의미, 18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모음을 도출하였다.

표 2.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생활에 대한 의미구성

주제 모음	주제	구성된 의미
힘들었던 지난 시간(지나온 나)	사별의 아픔	·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힘든 생활의 연속. ·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홀로 살아 가기	·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들음. ·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힘이 듦.
	경제적 어려움 이겨 내기	· 이것저것 안 해 본 일이 없어 닦치는 대로 함. ·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작은 일이라도 돈 되는 일이면 했음.
힘겨운 폐지수집 활동의 연속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	· 오랫동안 리어카, 손수레 끌기로 팔, 무릎 통증이 있음. ·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이 아프고 관절염이 심함. · 만성질환과 노환으로 아프고 힘들.
	부정확한 폐지 단가	· 폐지 외에도 공병(빈병)도 모아서 거래함 · 거래되는 폐지, 공병은 단가가 조금씩 다름. · 폐지 양과 돈 계산 부분은 자세히 모름.
	이웃간의 갈등	· 옆집에도 폐지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 신경 쓰임. · 모아둔 폐지 때문에 싸움이 남.

주제 모음	주제	구성된 의미
계속 지탱하기	주변의 시선	· 나를 도와주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함. · 불쌍하게 보는 눈들이 있지만 내 생활이라 생각함. · 누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음.
	그냥 좋음	· 나이 많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 좋음. · 많이 다니지 못해도 주변에서 갖다 주고 모아 주니 좋음.
	혼자 만의 일	·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혼자 할 수 있어 좋음. ·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일은 못하는 편임. · 아프면 쉬고 안 아프면 많이 다닐 수 있고 맘 편함.
	주변인들의 도움	· 이웃에 아는 사람들이 폐지를 모아서 줌. · 폐지 모아놓은 거 가져가라고 전화가 옴. · 내가 다니는 고정된 장소가 있어 직접 가지러 다님. · 교회 집사님, 친구들이 많이 모아서 줌.
	경제적 도움	· 먹고 싶은 거 사서먹어서 도움이 된다. · 보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
거리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젊은 층의 등장	· 젊은 사람들이 폐지 수집 다니는 거 보면 한심스럽고 안타까움.
	서로 간의 경쟁 (영역 다툼)	· 내가 못 다니는 지역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줌. · 내가 다니는 골목 가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걸 보고 싸운 적 있음. · 정해진 장소 외에는 일찍 일어나서 다니면서 모음 · 평지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비탈길 위주로 다님.
	자기 구역 관리	· 매일 다니는 가게에서 전화가 왔을 때 바로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영역(가게)을 빼앗김. · 모아둔 폐지를 가지고 올 때도 깨끗하게 주변 정리까지 하고 와야 함.
견디고 버티기 살아 남기 (지금의 나)	긍정	· 이렇게 살아도 맘은 편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음. · 몸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이런 것이라도 하니 다행으로 생각함. · 운동이다 생각하고 다님. ·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옷을 더 입고 털 입으면 됨.
	독립적 자 아	·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됨. ·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님.
	다시 일어 나기	· 힘들어도 또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해서 몸 나아지면 다시 함. · 많이 아프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나감. · 조금이라도 해야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음.
	모든게 내 탓이오	· 경제적으로 힘든 걸 남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음. · 내 북이 여기까지인가 생각함. · 영감 먼저 보내고 자식 먼저 보낸 것도 내 팔자라고 생각함.

<주제모음1> 힘들었던 지난 시간 - 지나온 나
 폐지수집 생활을 하는 여성노인 참여자들은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부분 홀로 생활한다. 어려웠던 시절 사별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자부했다.

나는 젊을 때 많이 고생 안했는데. 영감쟁이 죽고 나서 많이 고생했지 모두 재혼해서 살라고 했는데 저 여자 살로 온 여자...빨래도 저 냇가에 나가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안했다 아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 딱 싫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모양 요 꼴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까.

-참여자 나

젊을 때는 이것저것 고생고생 안한 게 없지요. 지금 고생은 고생도 아니지. 사별한지 오래됐지. 병에 걸리가 오래됐다. 죽은지. 자식도 앞세웠는데. 머슴아 그것도 30안쪽에 다 보냈는데. 며. 영감보다 먼저 갔는데. 우리 아들은 간경화로 갔고. 우리 영감은 간암으로 갔고 다 보냈다. 병이 걸리니까. 우짚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참여자 바

<주제모음2> 힘겨운 폐지수집활동의 연속

참여자들은 대부분 장기간(5년 이상) 폐지수집생활을 지속하는 상황이었으며,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까지 앓고 있어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정기적으로 폐지수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폐지수집활동을 하면서도 지역주민이나 타인들의 시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다.

쪼매씩(조금씩) 했었는데... 작년까지부터 본격적으로 했지 내 손 보면 전부터 툭툭 튀어 나와 있지. 관절이 다..."-참여자 마

혼자 살라고 저래 설치는거 보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거. 좀 도와주는 것도 있고 폐지 말고도 어제 아래도 저래 누가 먹으라고 감을 한 상자 가지고 왔더라. -참여자 바

파지도 다리가 아파서 좀 힘들다. 예전에 내가

수술한데가 여기 여계이쪽) 갈비가 좀 아프다. 갈비가 아파스리쪼매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 구루마(유모차) 저거 가지고 쪼매씩(조금씩) 한다. -참여자 사

어떤 사람은 나보고 아이고.아지매.와 이런거 하고 사요.그래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그러지. 내 운동 삼아 한다 와. 돈도 좋지만 돈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한다하고 말지 신경 안쓴다나는 다른 사람 전혀 의식 안한다 -참여자 라

<주제모음3> 계속 지탱하기

지속적인 활동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 여성노인 참여자들이 이러한 생활을 유지 하는 데는 고령의 나이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여러 명이 하는 집단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활동으로 심리적인 압박감도 없으며,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언제든 활동여부를 정할 수 있어 만족해했다. 매달 지급되는 정부보조금과 달리 폐지수집활동은 육체적 활동으로 인해 힘들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받는 수익인 만큼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나는 파지줍는 거 말고 다른 건 문해요. 할 줄도 모르고 머리도 안돌아가고.아이고 못해요 딱히. 놀러 갈때도 없고. 이리저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그러면서 눈에 보이면 몇 개 줘어 오고.

-참여자 가

내가 내 벌어서 쓰는 게 좋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돈이고 내가 파지 주어서 사먹는 게 더 맛있었다 자유롭게 다니니까 좋다. 어디 가서 며 활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안 써준다깁깝시럽기도 하고

-참여자 라

내 벌어 내가 살아야지. 무조건 내가 벌어야지. 내가 벌어야 내가 묵고 싶은거 사서 묵고 쓰고 그러지 생활비에서 내가 한달에 월급을 50만원 타면 집세가 25만원 나가제. 전기세 물세 이런거 저런거 다 치면 한 30만원 나가는데. 20만원 남잖아요 그게 며. 내 폰 값내고 이런거 저런거 하다보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조금 보탬이 될 란가 싶어서 저 폐지를 하는 거라.-참여자 바

<주제모음4> 거리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주거지를 기준으로 가까운 골목이나 도로를 다니면서도 폐지 수집이 가능했었지만, 참여자들과 같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인 40대~50대들도 폐지수집을 하고 있어 더욱 힘들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친구 소개나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상점들을 거점으로 규칙적으로 수집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폐지수집 일을 오랜 기간 했던 다른 참여자들과 동선(활동반경)이 같을 경우에는 그들만의 영역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어 폐지수집 활동 시간대를 파악하고 서로가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고충도 토로했다.

폐지 줍는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해요. 젊은 사람도 파지 줍는 사람이 천지라 많아요, 돈도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라봐 왜 저럴까? 싶을 정도요.

-참여자 가

저 ○○고개 저기 화장품 집이 있는데 거기는 내가 가거든 갔다가 막 가지고 와서 낮 12시 돼서 이제 밥먹을라고 밥상을 차리는데 또 전화가 왔는 거라. 박스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또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봐 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 챙겨준다고 그리 전화가 왔는데 밥도 못먹고 또 그 산만(산중턱)을 갔다 왔는데 아따 하루에 두 번 갔다 오니까 진짜 죽겠더라. 피곤해서.. 온몸이 아프더라고

-참여자 마

저기 저쪽에 사는 아저씨가 날로. 어서 가져가라는 거라. 그래서 가져왔는데. 저 옆방에 사는 저기 알면 나 큰일난다 지(옆집 폐지 할머니)는 그 소장한테 엄청 받아왔거든 [중략] 며칠 전에 요 근처에 개업을 했어 거기서 내가 몇 개 가져왔는데내 주위오는걸 또 저게 옆집) 봤어. 또 지켜란다. 무섭다. 그래서 나는 대문으로 문 다닌다. 저거 눈치본다고 -참여자 사

<주제모음5> 견디고 버티기, 살아남기 - 지금의 나 육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힘든 참여자들은 정부보조금(수급비, 기초연금 등)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어 폐지수집을 통한 부수적인 수입은 일상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일념이 강했으며, 팔자소관으로 치부하기도 했으나 자립적·독립적이며 긍정적이었다. 폐지수집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몸도 건강하다면 파지주러 다니면 돈도 되겠더라 가만히 보니 [중략] 나는 항상 생각하기로 너를 머라할 거 하나도 없대내가 이래 사는 것도 내 팔자고 내 태생이 그런 거다 생각한다내 잘못이다 생각한다 어디 다닐 때 차에 치었다고 하면 다 내 잘못이다 그래 생각하지. -참여자 가

아이고. 나는 내 복대로 산다 생각한다. 내가와 이리 사노 이래 생각하면 하루도 못살지내 하늘에서 주는 복이다 하나님어 주는 복인게 이래 산다 생각한다 [중략] 내가 머 없다고 짜증내고 하면 누가 나한테 머 보태주고 도와주나 즐겁게 살다가 가야지 내 생활 내가 해야지. 그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참여자 라

IV. 결론

본 연구는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이 경험하는 생활 속에서 삶의 변화를 탐색하고 고령사회인 현 시점에서 상대적 기대수명이 높은 빈곤여성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에서의 제도적·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조사는 A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빈곤 노인 중 폐지수집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폐지수집활동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인 여성노인으로 예비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18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으며,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이 경험하는 삶의 본질은 '수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결과 폐지수집 여성노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수집 여성노

인은 과거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빈곤한 노년을 맞았지만, 삶을 부정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수용·순응한다는 것이며, 폐지수집활동을 통해 남의 도움보다는 본인 스스로 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중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율성[18]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 노인의 노화경험에서 독립성이 기존 사회에서의 의존적이라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8]. 둘째, 폐지수집 여성노인이 활동을 지탱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급여의 보존·유지가 아니며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도 경제적 소득향상을 가장 많이 기대했으며, 참여의사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도 동일하다[20]. 또한 폐지수집활동이 생계형(생활비 등)이든 소일거리형(용돈벌이 등)목적이든 단순한 생활의 반복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들만의 활동영역이 정해져 있고 서로간의 갈등과 경쟁, 그리고 구역관리라는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생태계'가 있다는 것이며, '얼마간의 수입'이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의 사회활동이며 이러한 활동들이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용식(2016)의 연구에서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21]. 셋째, 폐지수집 여성노인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연령,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군가와 의 협동심을 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홀로'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러는데 있다. 또한 생활비 보조, 용돈 등의 형태로 소액이더라도 이렇게 발생하는 부수입이 폐지수집활동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변화로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폐지(폐자원)수집 활동에 가담하면서 기존의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활동 구역(구역 중복)이 좁혀지게 됨으로써 경쟁이 초래된다. 다섯째, 폐지수집 여성노인은 빈곤한 노후 생활의 연속이

지만 '내 복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인의 잘못으로 생각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며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자립적·긍정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혜경(2015)연구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의 경우에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도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은 폐지수집활동을 '운동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으며, 규칙적인 신체활동으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삶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긍정적인 삶의 형태가 지속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폐지수집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실천적·제도적 개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수집 여성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기초연금수령자로서 수급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폐지수집활동으로 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여가지원 및 문화생활 프로그램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빈곤하지만 노년의 삶에 대해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함으로써 이들이 지속적으로 폐지수집활동을 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소득별 지원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폐지수집활동 또는 부수적인 근로(할 일)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들에게는 수급자 지원기준 외에 '바우처'형식의 추가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만으로 생활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갖는 이들에 비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보다는 삶을 위해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폐지수집활동(여성)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지원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단, 열등처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조건에서 말이다. 이러한 지원은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활동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삶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함으로써 빈곤노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우울', '고독사'와 같은 각

중 사회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예방적 복지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폐지수집 여성노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 개발구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경우 성실·근면함이 있고, 폐지수집 활동이 힘들지만 신체활동으로 인한 ‘운동’, 그리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형성으로 인해 고립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지내온 시간들이 있어 이들에게 폐지수집활동을 단절시키는 것은 무효함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규칙적인 집단활동 보다 신체상태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약간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일거리를 연계해 줌으로써 폐지수집활동과 유사한 형태의 소일거리로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폐지수집 (여성)노인 및 저소득·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상생’지원책이 요구된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이 생활하는 거주지를 거점으로 관계자원(이웃, 지인, 친척 등)활용을 통한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은 거동이 가능할 때까지 지금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곤 노인을 위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배치보다는 지역 내에서 연대감을 통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방안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2014년 3월부터 독거노인의 관계자원형성과 관계성회복을 위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시범사업 또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예방과 관계회복을 위해 개입되고 있으나 한계를 갖는다[19].

본 연구는 빈곤노인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변화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관관계 그리고 빈곤노인의 노화경험과 관련한 단순한 현상을 다룬 질적 연구[8]들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립적이고 능동적으로 노후생활을 지속하려는 폐지수집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탐색함으로써 그간의 빈곤 노인에 대한 연구보다 한 단계 더 접근했으며 사회복지에서의 제도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폐지수집 여성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과의 적용 및 연계성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1] <http://kostat.kr>
- [2] 조용하,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statHtml>, 2016.
- [4] 송영신,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논문, 이화여대 보고서, 2015.
- [5] 장미혜, 문미경, 최인희, 석재은, 노혜진, 김혜원, 정지연, 양아름,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8-29, 2013.
- [6] 배명선, “폐지수집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정책적 대안,”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1호, pp.111-135, 2016.
- [7] 최현수, 류연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3권, 제3호, pp.143-160, 2003.
- [8] 장경은,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4호, pp.355-380, 2009.
- [9] 김영란,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근로빈민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0권, 제1호, pp.245-273, 2004.
- [10] 국민연금 통계연보, <http://www.nps.or.kr>
- [11] 전미애, 김정현, “노인의 소득원별 소득비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권, 추계호, pp.1-19, 2016.
- [12] 김혜경, *도시거주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과 삶에 대한 질적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3] 김영숙, 서경현, “생활환경에 따른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과 우울수준,” 노인복지연구, 제18권,

- pp.273-290, 2002.
- [14] 허준수,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2호, pp.227-247, 2002.
- [15]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CA: Thousand Oaks, 2007.
- [16]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 [17] Y. S. Lincoln and E. C.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1985.
- [18] B. J. Fisher and D. K. Specht,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The Journal of Aging Studies*, Vol.13, No.4, pp.457-472, 1999.
- [19] 석재은, 장은진,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통권 71권, 제2호, pp.321-349, 2016.
- [20] 현다경, 김형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7, pp.264-278, 2016.
- [21] 유용식,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 pp.129-139, 2016.

저 자 소 개

배 명 선(Myung-Sun Bae)

정회원



- 2003년 2월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16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18년 5월 ~ 현재 : 노인종합복지관 근무

<관심분야> : 노인복지실천, 노인복지정책분야